



제 84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council.gb.go.kr

도민에게 편만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4. 8. (제271회 임시회)



영덕 장시해수욕장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안동) 의원 선출

부의장에 윤창욱(구미) 의원, 장경식(포항) 의원 당선 소통과 참여 통한 현장중심 민생의회, 지방자치 정착 최선

경상북도의회는 7월 8일 오후 2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앞으로 2년간의 임기인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 장대진(안동, 새누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윤창욱(구미, 새누리) 의원과 장경식(포항, 새누리) 의원이 각각 당선되었다.

경상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은 2년간의 임기로 시작되며, 7월 15일 7개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함께 새로운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의장선거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60명, 출석의원 54명, 장대진 의원 50표, 한혜련 의원 2표, 김응규 의원 2표로, 장대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윤창욱 의원과 장경식 의원이 각각 당선되었다.

의장단 선거 이후, 오후 4시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식에서 장대진 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전체 도의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 집행부 및 도의회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개원 기념 축하연을 가졌다. 🍷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장 당선, 인터뷰

Interview

“민생안정 위한 의정활동 역점”

당선소감

제10대 전반기 도의회의장이라는 영광과 중책을 맡게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새롭게 재도약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정활동 목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생의회,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힘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23개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여 지역에서의 도의회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어 도민들의 변화와 쇄신 요구에 순응하는 투명하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고충을 헤아리고 의견을 존중하며,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원님 60명 모두 정당과 계파, 학연, 지역주의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화합하고 상생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Contents

차례

지면안내

화보	1면
영덕 장사해수욕장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운영방안	4~5면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윤창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특별기고 / 국가혁신의 리더가 되기 위한 경북의 전략	6면
신상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대 총장	
상임위원회 활동 / 운영방향	7~14면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법률상식 / 최한나 변호사 · 주민의 권리 찾기 주민감사청구제도	
제271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15면
5분 자유발언 / 김명호 의원	
건강칼럼 / 정상식 원장 · 귀지 꼭 제거해야 하나?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장대진 기획·편집 | 장영호, 남정해
편집인 | 이태암 발행처 |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

7개 상임위원장 선출, '힘있는 의회상' 확립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7월 15일 오전 11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개의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안전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홍진규(군위), 기획경제위원장 김희수(포항), 행정안전복지위원장 황이주(울진), 문화환경위원장 박권현(청도), 농수산위원장 정영길(성주), 건설소방위원장 윤성규(경산), 교육위원장 이영식(안동)이 선출됐다.

경상북도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7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했다.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진규(군위), 부위원장 조현일(경산), 위원에는 김인중(비례), 김종영(포항), 박영서(문경), 박용선(비례), 박정현(고령), 박현규(봉화), 배영애(비례), 배진석(경주), 안희영(예천), 이정호(포항), 이진락(경주), 이태식(구미), 황병직(영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희수(포항), 부위원장 배진석(경주), 위원에는 고우현(문경), 김위한(비례), 김창규(칠곡), 도기욱(예천), 박성만(영주), 박현규(봉화), 이태식

(구미), 장두욱(포항), 황재철(영덕), ▲행정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이주(울진), 부위원장 김인중(비례), 위원에는 김봉교(구미), 김정숙(비례), 남진복(울릉), 이정호(포항), 최태림(의성), 홍진규(군위), 황병직(영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현(청도), 부위원장 이진락(경주), 위원에는 김명호(안동), 배영애(비례), 배한철(경산), 윤창욱(구미), 이상구(포항), 이운식(상주), 한혜련(영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영길(성주), 부위원장 안희영(예천), 위원에는 나기보(김천), 박정현(고령), 오세혁(경산), 윤종도(청송), 이동호(경주), 이흥희(구미), 장용훈(울진), 조주홍(비례), 한창화(포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윤성규(경산), 부위원장 박용선(비례), 위원에는 김수문(의성), 김수용(영천), 남천희(영양), 박문하(포항), 박영서(문경), 이수경(성주), 장영석(구미), 정상구(청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영식(안동), 부위원장 김종영(포항), 위원에는 강영석(상주), 곽경호(칠곡), 구자근(구미), 김응규(김천), 장경식(포항), 조현일(경산), 최병준(경주). ☞

경북도의원 당선자 간담회

의회현황 및 운영사항, 의사진행 안내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당선자 간담회가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청 강당에서 도의원 전체 당선자(60명)와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의회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준비한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안내'에 따라, 경상북도의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도의회 현황 및 운영방향, 개원 및 의사진행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도의원 모두 개인별 인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경북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60명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경북·대구 상생발전에 시·도의회가 앞장선다

경상북도의회 · 대구시의회 상생 협력방안 추진 논의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일행이 7월 21일 대구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7월 9일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이 취임 인사차 도의회를 방문한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경북·대구의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시·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뜻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 양의장은 "경북과 대구는 역사와 문화가 한뿌리이고 정서적으로도 한집안이다. 앞으로 시·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선봉에 서자"고 다짐했다.

경북·대구 상생발전 방안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 선도화, 남부권 신공항유치 공동노력,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 팔공산구립공원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시·도의회 차원에서 자주 만나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부권 신공항유치,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을 가지고 3회에 걸쳐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북·대구의 공동협력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회의도 가진 바 있다. ☞



경상북도의회 방문



대구시의회 방문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
희망과 변화를 선도하는 힘있고 품격있는 의회!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의회 소식을 통해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2년동안 제10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도민의 축복과 염원속에 닳을 올린 우리 제10대 경북도의회는 개도 700주년을 맞아 웅도경북 백년대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도청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두된 국가혁신을 완성하고 안으로는 300만 도민의 화합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미력하나마 열정을 다 바쳐 일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행복과 경북발전을 위해 지역의 희망과 변화를 주도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높여가는 동시에, 도민과 동고동락하는 품격있고 강한 의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행부와 상생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질책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중심의 도민 공감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

식 함양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올해로 24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정부 권한이양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전국시도의회와 23개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도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60명 전도위원이 개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화합하고 상생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전체 도의원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중심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를 우뚝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더 큰 경북 신도청의 시대 의회 위상·소통·전문성 적극지원

윤창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0대 경상북도의회에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구미출신 윤창욱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의장 선출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 무한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지역의 유능한 참일꾼으로 새롭게 구성된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4년간의 힘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는 현장중심의 민생정치로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 전반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활력이 넘치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부의장으로서 완충과 교량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의회는 경북의 신도청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천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회 차원의 정책 및 입법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장단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전문연수원 설립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여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생활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경북도의회가 3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때 도민의 행복과 만족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그 어느



때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생동감 넘치는 경상북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민과 함께 섬김과 소통 의회 견제와 대안 제시하는 정책의회

장정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신도청 시대를 열고, 도내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고르게 발전하고 그 발전의 총합이 경북발전과 도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먼저, 힘있는 의회로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 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의회의 위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라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주도하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 잡고 끊임없는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도정의 중대한 현안사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협의가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00만 경북도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을 섬기고, 도민 곁으로 깊숙이 찾아가는 현장중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긴급 사안이나 오래된 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과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의 다양한 경로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실한 견제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대안제시형 정책의회로 거듭나는데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이 날마다 배우고 익혀 쇄신하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전문성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Think Tank' 운영과 생활정치 능력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 각자의 정책철학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도의회가 더욱 내실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상도 700년, 경북 신도청 시대를 목전에 두고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속에 지난 7월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힘차게 맞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민선6기의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강력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더 큰 경북'을 견인하는 동력으로서

국가혁신의 리더가 되기 위한 경북의 전략

신 성 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대 총장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글로벌화에 이르는 세계사의 흐름을 지난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성취하며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경제시대의 모방·추격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8년째 국민소득 2만불의 뒷에 갇혀 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기적은 끝났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월스트리트 저널), '서서히 끓는 불속의 개구리' (썬데이 보고서)라며 대한민국 성장정체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역사적 고비마다 국가발

부가 나서서 윈스톱 포털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요건은 사람이다. 우수한 인재가 오래 터를 잡고 살고 싶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선진화된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이 겸비된 정주여건이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연구개발이나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대경권의 특화산업을 잘 활용하여 기술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시도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섬유, 자동차부품, 첨단 공구, 철강, 전자 산업 등에 첨단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지역에 '히든챔피언'

다시 기술사업화를 통한 연구소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모범사례를 이미 7건이나 선보임으로써 이러한 협업적 혁신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셋째, 기술출자기업의 활성화이다. 대덕특구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수많은 기업을 직접 창업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채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이유는 연구와 비즈니스는 전혀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과 출연연이 기술을 출자하고, 외부의 전문 기업이 자본 및 경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창업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방식전환에는 이스라엘의 '예다'나 '이섬'과 같은 TTC(Technology Transfer Company) 및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역할이 중요하며, DGIST 역시 산학협력단이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철저한 글로벌화만이 살 길이다. 단 2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이 된 홍콩 과기대나 역시 10여 년 만에 과학기술의 강자로 떠오른 스위스 로잔공대(EPFL)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인재를 구하고, 그들이 다양한 언어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국 기업 및 연구소를 대경권으로 유치해오는 활동에도 지방정부와 의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 문화(Tolerance)의 '3T'를 모두 갖춰야 한다.

국가가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들여 설립한 DGIST는 대경권 기술혁신과 사업화에 앞장섬으로써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대전충청권의 대덕특구에 비해 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비해 80년이나 늦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겪어야했던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우리는 또 한 번의 성장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과감한 지원과 성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경북의 혁신적 전략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DGIST는 대경권 기술혁신과 사업화에 앞장서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과감한 지원과 성원 필요

전에 기여해온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혁신의 리더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대구경북은 1960년대 이후 대구의 섬유산업, 포항의 철강산업, 구미의 전자산업을 통해 산업화의 핵심리더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 또다시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또다른 혁신의 사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북이 앞으로 국가의 수준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선도지역이 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혁신생태계란 기술의 창안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상품 기획에서 제품 설계, 시험생산, 상품화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방정

(hidden champion)이라 불리우는 강소기업을 다수 육성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에 전체 수출의 2/3 이상을 의존하는 국가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려면 경북의 중소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총액이 대전특구보다 약 10배에 달한다는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진정한 히든챔피언으로 키워내야 한다.

셋째, 산·학·연의 협업적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과학의 발굴 및 응용을 통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힘을 합쳐 기초과학성과의 응용과 상용화 연구를 통해 제품개발을 빠르게 이루어냄으로써 소위 '악마의 강'과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 DGIST는 학사부(학부 및 대학원)와 연구부의 협력을 통해 '악마의 강'을 건너고,



의회운영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무소속(무)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새)
군위군

제271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환경을 재구축하는 첫걸음 입법정책 지원 시스템 강화

7월 15일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었다.

지난 7월 8일 의장단 선거에 이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는 군위군 출신인 홍진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부위원장에는 경산시 출신의 조현일 의원이 선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경북도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9명의 위원을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의원인 홍진규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운영과 각 상임위원회 간의 의정활동 등을 조율·지원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각 의원 및 상임위원회간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의회, 의정활동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과 관습은 과감히 개혁하고 체계적인 정책연구 및 입법기능의 확대를 통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7월 15일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부위원장을 선출한데 이어 7월 1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제272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을 심사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운영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동료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 환경 구축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의회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정책연구 및 입법기능 활성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현일 부위원장(새)
경산시 3



김안중 위원(새)
비례대표



김종영 위원(새)
포항시 6



박영서 위원(새)
문경시 1



박용선 위원(새)
비례대표



박전현 위원(새)
고령군



박현국 위원(무)
봉화군



배영애 위원(민)
비례대표



배진석 위원(새)
경주시 1



안희영 위원(새)
예천군 2



이정호 위원(새)
포항시 7



이진락 위원(새)
경주시 2



이태식 위원(새)
구미시 1



황병직 위원(무)
영주시 1

제10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방향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의회의 기능 정상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제10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방향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기능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 및 도민제안 수렴 등 소통하는 도의회 구현을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공개로 의사결정과정의 도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둘째,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의원상 정립으로 도민 신뢰회복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정한 직무수행 권고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도의회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셋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넷째, 도의원 입법정책 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입법정책관실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신속하고 현장감있는 의정홍보를 위하여 홍보인력 및 기술 장비를 고급화하고 의회 홈페이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



기획경제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무소속(무)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새)
포항시 2

제271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첫 상임위원회 개최
기본이 바로 선 사회 실현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7월 17~18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6개 실국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새로이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은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업무보고에서 박성만(영주) 의원은 정부 3.0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며, 주민들이 알고 동참해야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으며, 장두욱(포항)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사이버 테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행정마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경상북도 사이버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 업무보고에서 배진석(경주) 의원은 대변인 자리는 도정홍보를 위한 중요한 자리로 개방형 직위로 바꾸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고, 김창규(칠곡)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도청과 도의회를 견학하여 도정과 도의회의 역할, 활동상황을 소개받는 프로그램은 현장중심의 산 교육임으로 대상과 횟수를 늘려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포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변인실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금 더 분발할 것을 당부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는 향후 100년을 생각하고 100년의 먹거리가 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배진석 부위원장(새)
경주시 1



고우현 위원(새)
문경시 2



김위한 위원(민)
비례대표



김창규 위원(새)
칠곡군 2



도기욱 위원(새)
예천군 1



박성만 위원(무)
영주시 2



박현국 위원(무)
봉화군



이태식 위원(새)
구미시 1



장두욱 위원(새)
포항시 3



황재철 위원(새)
영덕군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 운영방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부자경북 만드는데 최선!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정전반의 기획조정, 예산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창출을 소관 업무로 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우리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도민의 뜻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집행부와 협력적·생산적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집행부의 주요시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생산적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효율적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노력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 하겠다. 도정의 주요 사업에 따른 자료조사 및 다양한 연구활동, 전문가 의견자문, 선진의회 벤치마킹 등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북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자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책화 하는데 노력하고, 서민의 편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저하지 않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특히, 현지확인을 통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며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

뿐만 아니라 국정목표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300만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 할 말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다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무소속(무)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새)
울진군 2

제271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도민 목소리 대변자로서 정책적 대안 제시할 것’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황이주)는 '14. 7. 17(목) ~ 7. 18(금) 양일간 제271회 임시회에 10대 도의회 출범 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첫째 날 경북도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 도립대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 농어촌지역 전문인력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도립대학교의 취업률이 60% 정도로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도내 공공 및 산하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업 특성화과를 육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개소수 8개소는 23개 시·군에 대비하여 숫자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여성의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시·군별로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여성공직자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시대에 여성공직자의 능력 배양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도에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할매·할배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상에 선심성 및 이벤트성으로 효과성이 의문스럽다며, ‘효’ 사상 고취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사전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위기가정 급증으로 한부모·조손·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경북도의 실국 업무수행에 차질 없는 수행을 주문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도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민의 생활현장의 생생함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



김인중 부위원장(새)
비례대표



김봉교 위원(새)
구미시 6



김정숙 위원(새)
비례대표



남진복 위원(무)
울릉군



이정호 위원(새)
포항시 7



최태림 위원(새)
의성군 1



홍진규 위원(새)
군위군



황병직 위원(무)
영주시 1

제10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운영방향

도정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생산적 의정활동에 역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황이주)는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중점 추진방향으로 ‘도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생산적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 안전망 구축요구 등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복지 및 자치행정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도정의 파수꾼으로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겠다는 각오이다.

도민의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의정 본연의 활동인 예·결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 정책 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그 어느때 보다도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주요 민생 현안사업은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사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 관련된 민생 현안해결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는 경북도정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과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운영을 다짐했다. 아울러, 항상 도민과 소통하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삶이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문화환경위원회

※ 장당명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무소속(무)



박권현 문화환경위원장(새)
청도군 2

제271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관심사안 대안 제시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1회 임시회 기간중 7월 15일 부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제10대 전반기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박권현 위원장과 함께 전반기 상임위를 꾸려 나갈 부위원장 선임에서는 조선의 이진락 위원(경주)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이어 이틀간 계속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는 첫 업무보고인만큼 도정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함께 궁금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있는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7월 17일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위원회는 도 전체 예산가운데 문화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경북이 문화융성을 선도해 나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추진시 외형보다 내용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서울 '인사동'이나 '민박촌'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좀 더 많은 고민을 거쳐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유통농산물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검사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상세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강조했으며, 현재의 AIDS 환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리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7월 18일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는 울진 금강송 불법벌목 사진작가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당함을 비판하면서 향후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으며, 영세농민들의 야생동물 방지시설 설치 자부담을 대폭 낮출 것과 시·군 간 원활한 왕래를 위해 일부 미비한 임도의 조속한 보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등 각종 수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는 등 소관 부서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이진락 부위원장(새)
경주시 2



김명호 위원(새)
안동시 2



배영애 위원(민)
비례대표



배한철 위원(새)
경산시 2



윤창욱 위원(새)
구미시 2



이상구 위원(새)
포항시 8



이운식 위원(새)
상주시 1



한혜연 위원(새)
영천시 1

제10대 문화환경위원회 운영방향

도민 문화복지 향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제10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새롭게 구성된 9명의 상임위원들간의 상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으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상임위 활동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북관광공사 출범, 백두대간·낙동정맥 에코&비즈벨트 조성,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제9대 상임위 기간중에 이루어낸 각종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문화향유를 통한 문화복지 향상과 도내 풍부한 산림생태자원의 보호·육성으로 미래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동력원 창출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급변에 추진중인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을 통한 문화교류협력 사업과 물분야 지구촌 최대 행사인 '2015 세계물포럼'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지역 체육활성화와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해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주요 체육행사에 대해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심사시 전 시·남비성 투자를 지양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사안별로 깊이있는 심사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관 부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추진 및 경영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으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임위가 되도록 위원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다. 🍎



농수산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무소속(무)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새)
성주군 1

제271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안희영 부위원장(새)
예천군 2나기보 위원(새)
감천시 1박정현 위원(새)
고령군오세혁 위원(새)
경산시 4윤종도 위원(무)
청송군이동호 위원(새)
경주시 4이홍희 위원(새)
구미시 5장용훈 위원(새)
울진군 1조주홍 위원(새)
비례대표한창화 위원(새)
포항시 1대·내외적 매우 어려운 환경
다각적인 노력과 자혜 모아야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7월 17일과 1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소관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수산위원들은 한·중 FTA, TPP, 쌀 관세화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양과수급문제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30~40대 귀농귀촌 유인 및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청년 농업인 양성 확대, AI방역 철저, 한우개량 방안,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 및 로컬푸드시스템 연계 정착, 다문화 농가 영농정착과정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전농가 경영기록장 쓰기 운동" 활성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보급 등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독도영토수호를 위한 국내의 홍보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해양안전사고 대비 사전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방지 대책, 적조피해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정상추진, 포항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대책, 소규모어항 시설정비사업 진척도 제고, 어업인 생계 관련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 경북해안바이오 유망기업 유치확대, 주상절리 관광객 편의성 제고조치 등을 주문했다.

특히, 7. 28(월) 도청 상황실에서 "구제역 방역 대책 및 쌀 관세화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급작스런 구제역 발생과 쌀 관세화 등 당면현안에 대해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피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른장마로 인한 가뭄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용수 급수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금 우리 농업은 농수축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농어촌인력 고령화, 기상이변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경북의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 직원은 사명 의식을 갖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운영방향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잘사는 복지농어촌 건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농수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촌 인력의 고령화 등 국내외 농어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잘사는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며, 특히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한·중 FTA 대응방안 모색,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육성대책 마련과 신규 소득원 창출 등 농어업인의 획기적인 소득증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및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 환동해시대 대비 동해안발전 전략 발굴 등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해 현장여론 수렴, 제정확보, 입법·정책 개발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은 농어업인의 현안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어업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응도 경북 농어업·농어촌의 새

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조해온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구제역 발생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예기치 않은 긴박한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는 감염경로, 백신접종시 항체 생성률, 도내 백신 공급률, 축산농가 백신접종 실태와 구제역 방역실태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챙기면서 철저한 대비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발표한 쌀 관세화 전환 결정과 관련해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비롯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추진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쌀 직불금 인상이나 경영비 절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소득보존 대책을 수립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무소속(무)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새)
경산시 1

제271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경북이 중심이 되는 사업추진
현안사업 문제점 지적 대책요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 등 대책을 요구했다. 첫째날, 건설도시방재국 업무보고에서는 상주~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 공사업체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부도가 나는 등 이로 인한 업체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찰관련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경북형 생활주거 모델개발과 관련하여 경북이 중심이 되고 많은 예산과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건설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소규모 업체 등도 끌고루 입찰·수주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둘째날,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도청이전을 내년 10월 완료 목표로 단정 짓지 말고 기반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유연성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하였으며, 또한, 도청이전 시기 연기발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의회와 협의·교감에 있어야 함에도 전혀 소통과 대화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발표된 점을 감하게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도시 기반시설, 정주여건 조성 등 도청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행정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역량 강화, 현장중심의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도 함께 했다. 이번 현지확인에서는 도청이전 신도시조성현장을 찾아 도청 신청사 공사현장과 기반조성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펼쳤으며,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확인한뒤 올 10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과 학교, 아파트 등의 정주여건 조성도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



박용선 부위원장(새)
비례대표



김수문 위원(새)
의성군 2



김수용 위원(새)
영천시 2



남철훈 위원(새)
영양군



박문하 위원(새)
포항시 4



박영서 위원(새)
문경시 1



이수경 위원(새)
성주군 2



장영석 위원(새)
구미시 4



정상구 위원(새)
청도군 1

제10대 건설소방위원회 운영방향

현장중심의 민생위원회,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경상도 개도 700년과 신도청 개막을 맞이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유라시아 대비 사통팔달 도로·철도망 구축, 남부권 신공항 건설, '새천년 신도읍시대'를 여는 도청이전 명품신도시 조성으로 맞춤형 지역개발과 도민이 행복한 경북실현을 위한 상임위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각종 재해·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정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도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는지 민심을 잘 살펴 현장중심의 민생 위원회,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둘째, 광역SOC망 확충으로 백년대계 미래경북의 틀 마련을 위해 △초광역SOC 도로철도망 구축 △도민체감형 지역균형개발 △수요중심 도시개발 및 도시공간 창출 △선제적 치수관리로 자연재해 제로 실현 등을 집행부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셋째, '새천년 신도읍시대'를 여는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을 위해 △경북의 정체성을 담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생태도시 건설 △도청이전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등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넷째,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설치 △권역별 119수난전문구조대 운영 △육상재난 전담 조직기능 강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



교육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무소속(무)



이영식 교육위원장(새)
안동시 3

제271회 교육위원회 활동

명품경북교육 실현, 세부실천 계획 제시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14. 7. 18(금)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경북교육 실현하고자 6대 과제 35개 세부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6대 주요과제로는 ①바른 삶을 가꾸는 체험활동 ②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③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④경쟁력을 키우는 인재 교육 ⑤희망을 주는 어울림 교육 ⑥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으로 설정하고 주요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밝힌 업무보고의 핵심내용은 '창의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인재교육'이었다. 경북의 4대정신인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하여 꿈과 재능을 키워주고 맞춤형 학력지도도를 강화하여 기초학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 증가에 대한 문제점, 울릉군지역 등급지 하향조정과 지역주민의 정서 및 교사 수급상황, 도교육청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정주여건 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감의 경북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태원 기획조정관은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교육감의 공약과 이를 구체화 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이에 위원들은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명품! 경북교육실현' 위하여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영식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으며 집행부에는 "경북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종영 부위원장(새)
포항시 6



강영석 위원(새)
상주시 2



곽경호 위원(새)
칠곡군 1



구자근 위원(새)
구미시 3



김용규 위원(새)
김천시 2



장경식 위원(새)
포항시 5



조현일 위원(새)
경산시 3



최병준 위원(새)
경주시 3

제10대 교육위원회 운영방향

명품! 경북교육 성숙한 교육자치 실현에 앞장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10대 의회 교육위원회 운영방향을 '안전한 학교만들기'와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교육정책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명품교육 실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자살이나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교권침해문제, 학생인권 문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비정규직 관련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의정활동도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법도 현장에서 찾는다는 각오로 폭력 피해학

생과 학부모, 봉사동아리 대표, 체육지도자, 진로지도교사, 행정실장, 조리사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듯이 금년에도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조성 등 '명품경북교육'을 위한 정책에는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10대 의회에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심도 있는 안전심사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의 심의·의결,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곳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정책오류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통제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시행해 집행부를 견제할 계획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무소속(무)



한창화 예결특위 위원장(새)
포항시 1

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경북도와 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 7. 22(화) 제 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포함 출신 한창화위원을, 부위원장에 의성 출신 최태림위원을 선출했다.

제10대 도의회 처음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은 고우현(문경), 광경호(칠곡), 김명호(안동), 김수용(영천), 김위한(비례), 김응규(김천), 김정숙(비례), 남천희(영양), 이동호(경주), 이상구(포항), 이수경(성주), 이흥희(구미), 황재철(영덕) 의원 등 총 15명이며, 2015년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한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창화 의원은 "경북도와 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상



최태림 부위원장(새)
의성군 1



고우현 위원(새)
문경시 2



광경호 위원(새)
칠곡군 1



김명호 위원(새)
안동시 2



김수용 위원(새)
영천시 2



김위한 위원(민)
비례대표



김응규 위원(새)
김천시 2



김정숙 위원(새)
비례대표



남천희 위원(새)
영양군



이동호 위원(새)
경주시 4



이상구 위원(새)
포항시 8



이수경 위원(새)
성주군 2



이흥희 위원(새)
구미시 5



황재철 위원(새)
영덕군

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경북, 골고루 잘사는 경북,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경북, 선제적 FTA대응으로 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학력신장, 인성함양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주민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함께 선출된 최태림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위원들에게 제공토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연중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주민의 권리 찾기
주민감사청구제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주인으로서 선거 때 뿐 아니라 재임기간 중에도 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중,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비교적 요건 및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범위에 한정 받지 않아, 최근 실효성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최한나 변호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작년 7월 성북구 주민 206명이 구의회 의원들의 해의 출장이 적절했는지 감사해줄 것을 서울시에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성북구의회를 감사한 결과 성북구 의원 18명이 작년 더키 출장을 다녀오면서 쓴 경비 4,216만원 가운데 1,400만원은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관광과 술값으로 쓴 것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1,400만원을 환수 결정을 하였다.

2009년엔 서울 도봉·금천·양천구 주민 14명이 구의회 의원들이 부당하게 의정비를 올렸다고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가 소송으로까지 간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청은 인상된 의정비를 환수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일도 있다.

이처럼 주민감사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사항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선 300명, 그 밖의 시·군·구에선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례'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 수리 60일 안에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들은 감사결과가 미비할 경우 법원에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절차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이나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대표자 증명서발급을 받아 주민들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서명요청기간은 시도의 경우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월, 시·군·자치구의 경우 3월까지이다.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감사청구제가 최근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감사실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낮은 처벌수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이 주권자로 내가 뽑은 공직자가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하게 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고 있다. 진정한 변화는 국민의 의식에서 시작한다. 국가와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권자가 되기 위한 길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 봄이 어떨까? 경주시 보문로 446(신평동) 경상북도관광공사 ☎ 054-740-7240 ☎



제271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비정상외상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7. 1

- 제안이유: 사회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비정상외상의 정상화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과제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7. 1

- 제안이유: 법령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할 사무를 지

정하고, 위임된 사무 중 폐지 사무의 삭제 및 지구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 2014. 7. 16

- 제안이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4. 7. 7 공포)'에 의거,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4급)'이 신설되고, 도청이전에 앞서 동해안권의 행정기능 보강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의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다. ☀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시급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안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가 시급



김명호 의원(안동)

함을 주장했다. 경매 전(前)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매 후(後)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극소수 샘플 검사에 그치는 등 2013년 기준 연간 반입물량 15만 2천톤 중 0.04%인 60톤만이 형식적으로 검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도(農道)를 자처하는 경북도의 위상에 맞지 않게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므로, 현장검사소 설치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건강칼럼

정상식 원장
(코아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에는 계절별로 특징적인 질병유형이 있다. 주로 환절기에는 감기환자분들이 많고 봄 가을에 알레르기 비염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외이도 질환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환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먼저 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귀청, 귓밥 등으로도 불리며 의학적으로는 이구로 명명되어 있는 귀지의 사전적 풀이는 귀속에 낀 때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귀지의 역할을 알면 귀지가 섬세해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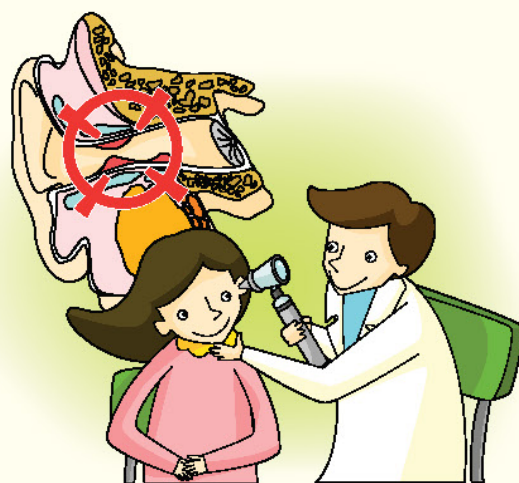
외이도의 피지선과 분비선, 피부표층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세포가 합해져서 귀지가 만들어지는데 외이도 공간에 있을 뿐 아니라 피부 표층에도 녹아있어 이들의 피부 침투를 늦추며 약산성으로 항균작용을 한다.

따라서 샤워나 물놀이를 자주하는 여름에 외이도를 자주 후비거나 물속에 오래 있어 이구충이 파손되면 외이도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가볍게는 소양증에서 심하게는 통증까지 유발하게 된다.

재밌게도 이구는 인종적, 유전적으로 다른데 보통 흑인과 백인은 습하고 끈적끈적한 양상이어서 영어로 귀왁스(ear-wax)라고 이야기하며 아시아인종과 미국 인디언들은 건조한 귀지를 보인다.

이구의 양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며 양이 많아서 자주 귀지가 쌓이는 분들은 샤워 후 면봉으로 아주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귀충만감이나 가려움증이 있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제거를 하게

귀지 - 꼭 제거해야 할까?



안전하다.

외이도 안쪽의 귀지는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외이도 입구부에서 대개는 저절로 밖으로 배출된다. 노령화가 되면 이런 외이도의 자정작용이 떨어져서 귀지가 외이도를 폐쇄하는 이구전색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귀지는 이구전색이나 주로 소아의 경우에 중이염 등 고막의 관찰을 위해서가 아니면 무리하게 제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귀지의 자정작용뿐 아니라 외이도 구조가 만곡되어 있어 외부의 침입에 잘 견딜 수 있으나 잘못된 관리로 여러 가지 형태의 외이도염이 생길 수 있다.

먼저 급성 국소 외이도염은 외이도의 모양에 세균이 감염되어 통증이 심하고, 외이도의 발적 부종으로 귀 충만감이 생긴다. 항생제와 적절한 국소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급성 범발성 외이도염은 외이도 전체에 전반적으로 세균성 감염이 진행된 상태로 통증이 심하고 귀 주위로까지 통증이 퍼지기도 하며, 소양증, 이충만감, 청력 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

대개 병이 진행이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짧지 않고 습관적으로 귀를 자주 후비는 경우, 수영강사나 습진 등이 있는 분에게서 피부 표층의 소실과 이에 따른 세균성 감염이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고 자주 재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만성 외이도염은 주로 가려움증을 주증상으로 내원하는데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외이도의 감염과 염증으로 세균이나 진균성 외이도염이 자주 재발하는 형태이다. 적절한 국소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며 잘 닦지 않아 불치병 아닌 불치병으로 인식된다.

노령으로 인한 외이도 자체의 약화가 아니면 대부분의 외이도염은 면봉이나 귀후비개 등으로 외이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시작되므로 땀이 많이 나고 샤워를 자주해서 귓속에 물이 노출되는 여름은 외이도염의 계절이다.

물에 노출된 귀는 과도한 자극없이 충분히 건조시키며 평소 외이도염이 잦은 분들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심한 염증이나 만성으로의 이행을 막을 것이다.

코아 이비인후과/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260-9 ☎ 053-954-7585 ☀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http://council.gb.go.kr>



도민의 성원과 진심어린 애정 그리고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라는 희망경북!
새로운 희망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소외받고 어려운 우리 이웃을 늘 살피고 도민의 권익신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어주시고 늘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희망찬 경북! 앞으로도 새로운 희망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